

영문 잡지 『코리안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1892~1898)의 성격과 의미*

이영미**

〈차 례〉

1. 머리말
2. 창간 과정과 올링거 편 『리포지터리』의 특성
3. 아펜젤러와 존스 편 『리포지터리』와 '선교사 겸 학자'들의 성장
4. 『리포지터리』에서 『회보』와 『리뷰』로
5. 맺음말

[국문초록]

1892년 1월 미국 북감리교 한국선교부는 배재학당 내 미미미할판소에서 영문 잡지 『코리안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를 창간하였다. 창간호는 창간사 없이 일반 기사 5편과 편집자 집필 부문을 합하여 37매로 꾸려졌고, 편집은 다년간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내한한 올링거(Franklin Ohlinger, 1845~1919) 부부가 맡았다. 이 잡지는 한국의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 잡지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망라하여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종합 월간지로 출발하였다.

본 논문은 『리포지터리』의 창간부터 정간까지의 전 과정을 검토하여 잡지의 성격과 의미를 구명하였다. 첫째, 올링거는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에 관한 초보적인 연구 성과와 한국의 현재 상황을 다룬 글을 두루 신는 종합 월간지로서 『리포지터리』를 만들었다. 선교 관련 기사로 잡지를 채우는 것은 그의 의도가 아니었다. 둘째, 1895년 『리포지터리』의 새로운 편집자가 된 아펜젤러와 존스는 '선교'와 '연구'를 잡지의 양대 관심사로 삼았다. 선교 관련 기사가 늘어나는 한편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다룬 학술적인 글도 꾸준히 들어왔다. 마지막으로 1899년 말 아펜젤러와 존스가 동의한 것은 『리포지터리』의 폐간이 아니라 1년 휴간이었다. 복간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편집자들과 주요 필진들은 『리포지터리』를 계승하는 의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1047).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미에서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회보(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와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를 창간하였다.

[주제어] 북감리교 한국선교부, 『코리안 리포지터리』, 올링거, 아펜젤러, 존스, 험버트, 게일, 랜디스,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회보』, 『코리아 리뷰』

1. 머리말

1892년 1월 미국 북감리교 한국선교부는 배재학당 내 미이미활판소에서 영문 잡지 『코리안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이하 『리포지터리』로 줄임)를 창간하였다. 창간호는 창간사 없이 일반 기사와 편집자 집필 부분을 합하여 37매로 꾸러졌고, 편집은 다년간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내한한 올링거(Franklin Ohlinger, 1845~1919) 부부가 맡았다. 일반 기사로는 한글의 기원을 탐색한 「한국의 글자」와 임진왜란의 전사(前史)를 서술한 「일본의 침공」, 한반도 북부 지방 여행기인 「압록강과 그 너머로」, 「한국 근처에서 이루어진 러시아의 고고학적 연구와 한국의 석기」, 「1891년을 회고하며」까지 5편이 실렸다. 편집자 집필 부분은 한성부의 포고문 내용을 수록한 글과 <독자 편지>, <질의 응답>, <주요 사건> 등의 항목으로 꾸러졌다. 이 출판물은 한국의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 잡지가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망라하여 한국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종합적인 매체로 출발하였다.

『리포지터리』는 1892년 12월호를 끝으로 발행을 멈추는 듯하다가 1895년 북감리교 한국선교부의 다른 선교사들에 의하여 복간되었다.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 1858~1902)와 존스(George H. Jones, 1867~1919)가 공동 편집을, 1893년 가을 북감리교 한국선교부에 합류하여 미이미활판소의 새로운 책임자가 된 험버트(Homer B. Hulbert, 1863~1949)가 운영을 담당하였다. 이후 이 잡지는 1898년 말까지 발행되면서 한국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寶庫(repository)’로 기능하였다.

『리포지터리』와 관련하여 우리 학계가 제출한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약

15년 전에 나온 유영렬·윤정란 연구팀의 공저이다.¹⁾ 이 책은 『리포지터리』 각호의 목차, 필자, 쪽수를 목록화하고 필진의 규모와 특성을 개괄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일반 기사와 편집자 집필 부문에 실린 글들을 주제별로 검토한 역작이다. 다만 창간과 휴간, 복간과 정간의 배경과 과정을 유기적으로 분석하지 않은 점, 매체의 특징과 성격을 충분히 밝히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데, 이는 연구의 무게중심이 잡지 자체가 아니라 개별 기사에 나타난 필자들의 지(知)와 인식을 검토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의 연구들도 대부분 한 인물이 쓴 기사 몇 편을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특정 주제의 글들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²⁾ 이러한 연구 경향의 결과 『리포지터리』는 ‘한국 최초의 영문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모가 알려지지 않았다. 잡지 자체의 특징과 성격에 좀더 주목한 강혜정의 논문이 있지만,³⁾ 그 또한 『리포지터리』를 전 시기에 걸쳐 검토한 것은 아니어서 보완적 성격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리포지터리』의 창간부터 정간까지의 전 과정을 검토하여 잡지의 성격과 의미를 구명하려는 시도이다. 첫 번째 장에서는 올링거에 의한 창간 과정을 살펴보고 일반 기사를 분류하는 작업을 통하여 『리포지터리』의 초기 성격을 설명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복간 후 『리포지터리』의 발전과 변화상을 파악하는 가운데, 몇몇 선교사들이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공부하고 그 결과물을 이 매체에 실으면서 ‘선교사 겸 학자(missionary and scholar)’로 성장하였음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 장에서는 1898년 12월 북감리교 한국선교부가 발행 중단을 결정한 배경과 원인을 조사하고, 『리포지터

1) 유영렬·윤정란,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와 한국 사회: The Korean Repository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04.

2) 이에 해당하는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연도순). 김승우, 「호머 할버트(Homer B. Hulbert)의 아리랑 논의에 대한 분석적 고찰」, 『비교한국학』 20-2, 2012; 송민규, 「『The Korean Repository』에 소개된 Love Song 연구」, 『현대문화이론연구』 52, 2013; 이상현·빈첸자 두르소, 「익명의 한국학자, 이익습(李益習, Yi Ik-seup)과 The Korean Repository誌의 ‘훈민정음 기원론’ 논쟁」, 『열상고전연구』 54, 2016; 권선경, 「The Korean Repository에 나타난 민간신앙 관련 기사의 양상과 의미」,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7-2, 2018; 석주연, 「한국학회보 『Korean Repository』의 한국어와 한국어 학습 관련 기사 연구」, 『언어학』 83, 2019.

3) 강혜정, 「The Korean Repository의 학술자료적 가치」,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6-4, 2017.

리』가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회보(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이하 『회보』로 줄임)와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이하 『리뷰』로 줄임)로 계승 및 발전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창간 과정과 올링거 편 『리포지터리』의 특성

1888년 1월 서울에 도착한 올링거는 이듬해 가을 미이미활판소를 설립하였다. 그는 『미이미교회문답』을 비롯한 소책자들을 번역 출판하는 한편, 중국에서 최초의 한문 신문 『순산사자(鄔山使者 : Zion's Herald)』(1874~1875)를 발행한 경험을 살려 1891년 『코리아 리코더(The Korean Recorder)』(이하 『리코더』로 줄임)를 창간하였다.⁴⁾ 『리코더』는 창간호가 마지막 호였으며 소장처도 알려진 바가 없으나, 그의 중국 활동 경력과 제호의 유사성으로 미루어 볼 때 1867년 푸저우 감리교 출판사에서 발간된 『차이니스 리코더 앤 미셔너리 저널(The Chinese Recorder and Missionary Journal)』(이하 『차이니스 리코더』로 줄임)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차이니스 리코더』는 창간 당시 제호가 『미셔너리 리코더(The Missionary Recorder)』였는데, 선교 전문 잡지에 만족하지 않고 ‘동양 선교 관련 정보의 보고이자 일반 정보의 매체’를 지향하였다. 1869년 새로운 제호를 달고 복간되면서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및 인접 국가들의 과학, 문학, 문명, 역사, 종교에 대한 지식의 확대에 헌신’할 것을 표방하였다.⁵⁾

1870년부터 십수년간 푸저우에서 활동한 올링거는 『차이니스 리코더』의

4) 올링거는 중국 선교사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다. 미국 최초의 독일 감리교 대학인 저먼왈라스대학을 졸업하고 3년간 목사로 활동하였으며, 1870년 가을 북감리교 선교사로서 푸저우에 파송되어 성경 학교를 설립하고 『순산사자』를 발간하였다. 1881년 최초의 근대 학교 중서학원(영화서원)을 설립하였으나 영어 교육을 반대하는 동료 선교사들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북감리교 해외선교부의 결정에 따라 1887년 말 내한하여 1893년 9월까지 6년 가까이 한국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옥성득, 『초기 한국 북감리교의 선교 신학과 정책 : 올링거의 복음주의적 기독교 문명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11, 1999: 설충수, 『미 북감리교의 이중 언어 교육 논쟁 연구 : 프랭클린 올링거의 북주 영화서원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45, 2016.

5) 작은따옴표 안의 내용은 잡지 표지에 기록된 문구이다.

독자이자 기고자였다.⁶⁾ 따라서 그가 한국에서 만든 『리코더』도 『차이니스 리코더』를 모방하여 한국에 대한 다방면의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 기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두 번째 호는 나오지 않았다. 당시 미 이미활판소의 활발한 출판 이력과 이듬해 『리포지터리』가 나온 것을 보면 재정적인 문제 때문은 아닐 것이다. 좀더 가능성 있는 가설은 『리코더』의 정기 간행을 위해서는 일반 기사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수적인데, 그가 글을 써 줄 사람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일반 기사는 편집자의 청탁을 받은 사람이나 자신의 글을 발표하고 싶은 사람이 원고료를 받지 않고 기고하는 글이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누구나 일반 기사의 필진이 될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편집자와 가까운 사람, 예를 들면 동료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글쓰기에 참여해야 했다. 물론 선교사가 아닌 재한서양인들의 집필 지원과 기타 협조도 매우 중요하였다.

올링거 부부는 『리코더』 두 번째 호 대신 1892년 1월 『리포지터리』 창간호를 냈다. 이번에는 창간호에서 그치지 않고 1년간 통권 12호를 발행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2월호 <편집자 노트>의 다음 대목에 나타난 것처럼, 그들이 동료 선교사들과 재한서양인 사회로부터 일정한 ‘지지’와 ‘도움’을 받았음을 뜻한다.

우리는 창간호에 창간 ‘연설’을 실을 지면이 없었던 점을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미이미활판소는 물론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의 소속 기관들이 널리 공지해 주신 덕분에 『리포지터리』의 목적, 범위, 구성이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다고 믿습니다.

문자적 의미의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우리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국인과 현지인 각계각층의 도움을 받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완전하고 믿을 만한 기록을 전달하고 싶다는 점을 거듭 밝힙니다. 우리의 지면은 일반적이고 소통가능한 관심을 가진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⁷⁾

6) 올링거는 1874년 5~6월 『푸저우에서 주강(九江)까지 육로 여행』과 1886년 7월 『푸저우 인근의 산악 민족 방문』을 『차이니스 리포지터리』에 기고하였다.

『리코더』가 『차이니스 리코더』에서 온 것처럼 『리포지터리』 또한 『차이니스 리포지터리(The Chinese Repository)』에서 왔다. 『차이니스 리포지터리』는 1832년 미국인으로서는 첫 중국 선교사가 된 브리지먼(Elijah C. Bridgman, 1801~1861)(침례교)이 광둥에서 만든 매체로, 나중에는 학술지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역사, 문화, 현황을 두루 소개한 종합적인 성격의 잡지였다. 즉, 『리코더』든 『리포지터리』든 올링거의 목적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한 관심과 “일반적이고 소통가능한” 관심(예를 들면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을 아우르는 월간지를 발행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실제로 창간 첫째 『리포지터리』에 누가 어떤 글을 썼는지 살펴보자. <표 1>에 따르면 서양인 22명과 이익습(李益習)이라는 한국인까지 총 23명이 필진으로 참여하여 일반 기사 56편을 기고하였는데, 그중 1편은 올링거와 아펜젤러, 스스로를 ‘구독자(subscriber)’라고 밝힌 익명의 독자, 캐나다 출신으로 북장로교 선교사가 된 게일(James S. Gale, 1863~1937)에 의하여 쓰였다.⁸⁾ 필진의 3분의 1은 미국 교단에 소속된 선교사들로 북감리교 5명과 북장로교 3명이었다. 북감리교에서는 올링거와 존스가 각 8편, 아펜젤러가 4편, 올링거 부인(Bertha S. Ohlinger, 1856~1934)이 2편, 이화학당장 로스 와일러(Louisa S. Rothweiler, 1853~1921)가 1편을 썼고, 북장로교에서는 게일이 5편, 기포드(Daniel L. Gifford, 1861~1900)가 2편, 마펫(Samuel A. Moffett, 1864~1939)이 1편을 썼다. 『한국의 인구는 얼마일까』가 4명의 글을 합한 것임을 감안하면 56편의 절반인 29편이 이 8명에 의하여 쓰인 셈이다. 또한 29편 중 22편이 북감리교 남녀 선교사 5명에 의하여 쓰였는데, 이는 『리포지터리』가 북감리교에서 내는 잡지이자 이제 막 시작된 잡지였다는 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7) F. Ohlinger and Mrs. F. Ohlinger (ed.), *The Korean Repository*, Vol. I (January–December 1892), New York: Paragon Book Reprint Corp., 1964, p. 67.

8) 4월호에 실린 『한국의 인구는 얼마일까』가 그것이다. 이 글은 편집자(올링거), 아펜젤러, ‘구독자,’ 게일이 쓴 짧은 글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이다.

〈표 1〉 1892년도 『리포지터리』 일반 기사의 필진(총 23명)

구분(명수)	저자(편수)	기사
북감리교 선교사 (5)	올링거(8)	「1891년을 회고하며」, 「한국 역사와 언어에 나타난 불교」, 「한국의 인구는 얼마일까」, 「어느 광적인 불교도」, 「한국의 격언과 속담」, 「암스트롱의 책에 대한 서평」, 「扶桑은 어디일까」, 「언반절」
	존스(8)	「일본의 침공」(I)~(VII), 「한국어의 어원」
	아펜젤러(4)	「한국의 개항에 대한 슈펠트 제독의 기록」, 「스콧 편 영한사전에 대한 서평」, 「한국의 인구는 얼마일까」, 「서울의 시작」
	올링거 부인(2)	「3명의 한국 여왕」, 「한국 의료 선교의 시작」
	로스와일러(1)	「여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북장로교 선교사 (3)	개일(5)	「압록강과 그 너머로」(I)~(III), 「한국의 인구는 얼마일까」, 「언문의 창시자」
	기포드(2)	「명산 방문」, 「한국에서 행해지는 조상 숭배」
	마켓(1)	「한국 여행에 관한 제언」
비(非)선교사 (15)	피르셀(3)	「1892년의 중요한 날, 금세기 가장 중요한 날」, 「이즈모마루 호의 침몰」, 「1891년 한국의 무역 실태」
	백고완(3)	「한국 근처에서 이루어진 러시아의 고고학 연구와 한국의 석기」, 「한국의 석유」, 「한국 근처에서 발견된 패총」
	굴드애덤스(3)	「한국의 몽블랑 여행」(I)~(III)
	힐버트(2)	「한국의 글자」(I)~(II)
	엡킨스(2)	「극동의 페르시아인들」, 「扶桑의 실체」
	이익습(2)	「한국의 글자(반절)」, 「어떤 세계 지도」
	알렌(1)	「한국의 어떤 실화」
	맬릴리우(1)	「한국에서의 선교」
	익명의 저자 7명(11)	「한국의 학교들」(X), 「중요한 기념물의 발견」(Z), 「한국의 인구는 얼마일까」(구독자), 「한국 : 애원과 호소」(I)~(III)(G), 「짧은 논평」(I)~(III)(여행자), 「한국의 항구들」(왕립지리학회 회원), 「한국 인구 관련 자료」(보수당원)

필진 23명 중 8명이 미국 교단에 소속된 한국 선교사였다면, 나머지 15명은 국내외에 거주하던 전직 선교사 또는 선교사가 아닌 자들이었다. 전직 선교사는 한국 주재 선교사 1호에서 주한미국공사관 서기관으로 전업한 알렌(Horace N. Allen, 1858~1932),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영사관이나 해관

등지로 이동한 맥고완(Daniel J. MacGowan, 1814~1893)과 엣킨스(Joseph Edkins, 1823~1905)까지 3명, 선교사가 아닌 사람은 인천해관 초기 구성원으로 제물포에 살고 있던 독일인 피르젤(Ferdinand H. Mörsel), 1891년 백두산에 오른 영국 장교 골드애덤스(Henry E. F. Goold-Adams, 1860~1935), 육영공원 교사 계약을 마치고 귀국한 헐버트, 1892년 8월 한국을 방문한 북감리교 주교 맬렐리우(Willard F. Mallalieu, 1828~1911), 한국인 이익습까지 5명이었다. 7명은 이름을 밝히는 대신 알파벳 대문자(X, Z, G)나 '구독자,' '여행자(Viator),' '왕립지리학회 회원(F. R. G. S.),' '(영국의) 보수당원(Conservative)' 등을 기재하였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선교사는 아니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리포지터리』는 선교 전문 잡지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수렴하는 종합 월간지였다. 실제로 1892년 23명이 집필한 56편의 일반 기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많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관련 기사가 많지 않다는 것이 눈에 띈다. 선교 관련 기사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교육 선교에 종사하고 있던 로스와일러의 글과 올링거 부인이 쓴 「한국 의료 선교의 시작」, 북감리교 주교 맬렐리우가 쓴 「한국에서의 선교」 3편 정도이다. 게일의 「압록강과 그 너머로」는 1891년 마펏과 함께한 선교 여행의 기록을 담았지만, 내용은 일반 여행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선교 관련 기사로 분류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창간 첫째 『리포지터리』 일반 기사들이 주로 다룬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먼저 선교사들이 발표한 글의 상당수는 빈약하나마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에 관한 것이었다. 북감리교에서는 올링거가 「한국 역사와 언어에 나타난 불교」와 「어느 광적인 불교도(弓齋—필자)」를 비롯하여 여러 편의 글을 썼고, 존스는 일본의 통일부터 진주성 전투에 이르는 초기 임진왜란사를 7회에 걸쳐 서술하였다. 아펜젤러는 태조의 한양 천도 과정을 그린 「서울의 시작」을, 올링거 부인은 신라 여왕들의 이야기인 「3명의 한국 여왕」을 기고하였다. 북장로교에서 나온 글 중에는 기포드의 「한국에서 행해지는 조상 숭배」가 가장 뛰어났지만, 게일도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에 관심이 있었음을

『언문의 창시자』뿐 아니라 여행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선교사 필진 중에도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에 관하여 글을 쓴 사람이 여럿 있었다. 특히 전직 선교사들이 그러하였다. 중국 선교사 출신 맥고완과 옛킨스는 각각 고고학적 증거와 문헌 자료를 통하여 한국의 과거에 접근하려 했고, 1890년 북장로교 한국선교부를 사임한 알렌은 정조와 의빈성씨의 일화를 소개하였다. 엄밀한 의미에서 전직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선교사 사회의 일원이었던 헐버트는 한글의 기원을 탐색한 『한국의 글자』를 2회 연재하였으며,⁹⁾ 이듬해 9월 북감리교 한국선교부의 정식 선교사로 내한하였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보다는 한국의 현황과 전망이라든지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주로 다루었다.¹⁰⁾ 한국에 오랫동안 거주한 사람이라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1883년 내한한 뫼르젤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는 『리포지터리』에 몇 편의 일반 기사를 기고하고 편집자 집필 부문에도 도움을 준 인물이었으나,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에 대한 글 대신 기상과 천문, 일본 선박의 침몰 사건, 개항장 무역 실태에 관한 글을 썼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현직 선교사들의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92년 『리포지터리』의 특징은 선교사 8명과 비선교사 15명이 일반 기사 필진으로 참여한 것, 선교사들이 56편 중 절반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관계 기사가 별로 없다는 것, 전현직 선교사들이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였다면 선교사가 아닌 사람들은 당시 한국의 상황에 집중하였다는 것 등으로 요약된다. 그리하여 이 해에는 초보적이지만 한국의 언어,

9) 1886년 내한한 육영공원 교사 3명은 전원 유니언신학교 출신이었고 헐버트를 제외한 2명은 목사였다. 그들은 선교부의 임명을 받은 정식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 정부의 피고용인이었지만, 한국에 먼저 와 있던 선교사들—남녀를 합하여 10명 정도였다—과 가깝게 지냈을 뿐 아니라 공사관에서 열리던 예배 때 설교자로 서기도 했다. 당시 북장로교 소속 의료선교사였던 알렌은 그들이 선교부와 연계가 없고 정부 소속의 교사일 뿐이라고 외부에 말하였다가 헐버트를 비롯한 선교사들의 항의를 듣기도 했다(김인수 옮김, 『알렌 의사의 선교·외교 편지(1884~1905)』, 장로회신학대학교부설 한국교회사연구원, 2007, 185~186쪽).

10) 예외는 이익습의 글 2편과 익명의 저자 ‘Z’가 쓴 「중요한 기념물의 발견」이다. 「한국의 글자(반질)」는 헐버트의 논문에 반박한 글, 「어떤 세계 지도」는 한국에서 오래 전에 제작된 세계 지도 1종을 검토한 글, 「중요한 기념물의 발견」은 정림사지 5층 석탑과 탑신에 새겨진 명문(銘文)을 다룬 글이다.

문화, 역사를 다룬 글과 그렇지 않은 글이 비슷한 비율로 실리게 되었으며, 강혜정이 지적한 대로 종교적인 내용은 전혀 중심이 되지 않았다.¹¹⁾

3. 아펜젤러와 존스 편 『리포지터리』와 ‘선교사 겸 학자’들의 성장

『리포지터리』가 창간 1년 만에 휴간을 맞은 이유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다. 휴간과 올링거 부부의 귀국 사이에 영향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한국을 떠난 시점은 1893년 초가 아니라 9월이었으므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해도 좋다.¹²⁾ 그들이 휴간을 결정하게 된 사정은 12월호 <편집자 노트>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번 호로서 『리포지터리』 1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잡지의 미래에 관하여 뭔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며 발행을 가능한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리의 너그러운 독자들과 사려 깊은 비평가들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친절한 분들께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 우리는 당초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많은 격려를 받았고, 『리포지터리』와 같은 출판물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기고자들은 2권에도 글을 써 주겠다고 기꺼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 ‘그런데 왜 그만두는가?’라는 질문이 몇 번이고 우리에게 남습니다. 우리의 초교지나 우편 부서를 한 번 보신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장 잘 전달될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입니다.¹³⁾

휴간 이유는 원고 부족이나 재정 문제가 아니라 매월 잡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었다. 이는 사실이었을 것이다. 올링거는 그냥 『리포지터

11) 강혜정, 앞의 논문, 34쪽.

12) 올링거는 선교 정책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감리사 스크랜튼(William B. Scranton, 1856~1927)과 같은 끝에 북감리교 해외선교부의 지시에 따라 한국을 떠났다(옥성득, 앞의 논문, 34~36쪽).

13) F. Ohlinger and Mrs. F. Ohlinger (ed.), op. cit., p. 377.

리』 편집자가 아니라 미이미활판소의 책임자이자 서울 구역을 담당하는 목사였으며, 이외에도 미국성서공회 한국지부 부총무 등 몇 개의 직함을 갖고 있었다. 나이도 동료 선교사들보다 훨씬 많은 40대 후반이었다. 그는 『리포지터리』가 1년간 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올링거 부인이 교정 업무를 전담한 덕분이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다른 사람들이 잡지 발행을 재개한다면 계간이 적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포지터리』는 2년간의 휴간을 거쳐 1895년 1월 복간되었다. 올링거의 뒤를 이어 미이미활판소의 책임자가 된 헐버트가 운영을 맡고, 올링거 편 『리포지터리』에 여러 편의 기사를 쓴 아펜젤러와 존스가 편집진으로 나섰다. 복간 자체도 쉬운 일이 아닌데 고참 선교사가 2명이나 편집자로 참여하였다는 것은 북감리교 한국선교부가 이 매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였는지를 잘 보여 준다. 『리포지터리』는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안정적인 출판 및 보급 체제를 갖추고 1898년 12월까지 4년간 발행되었다.

아펜젤러와 존스는 올링거 편 『리포지터리』를 계승하면서도 잡지의 성격을 구체화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 그들은 1895년 1월호 <편집부>에 잡지의 목적, 범위, 구성은 전임자가 발행하던 당시의 그것과 같으면서도 곧바로 다 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우리는 선교 소식, 사업, 방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친한국적 시각을 가지고 오늘날의 한국에 다방면으로 주목할 것이나, 현재의 수수께끼에 답해 주고 미래의 실마리가 되어 주는 과거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발견하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언어, 역사, 종교, 풍습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공부하고 그 결과물을 게재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¹⁴⁾

새로운 『리포지터리』는 “선교 소식, 사업, 방법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

14) H. G. Appenzeller and G. H. Jones (ed.), *The Korean Repository*, Vol. II (January–December 1895), New York : Paragon Book Reprint Corp., 1964, p. 28.

기로 했다. 선교를 개시한 지 10년이 되었으나 선교 전문 매체가 없던 시점에서, 아펜젤러와 존스는 『리포지터리』가 과거와는 달리 선교에 관한 글을 더 많이 실는 잡지가 되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다. 선교 관련 기사를 좀더 실는 것은 『리포지터리』를 안정적으로 발행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었다. 매월 4~6편의 일반 기사를 게재하려면 재한서양인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교사들을 필진으로 참여시켜야 하는데, 그들이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각자의 선교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리포지터리』는 오늘날의 한국에 계속 주목하되 “과거의 역사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한국의 언어, 역사, 종교, 풍습에 대한 연구 성과를 실을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이로써 새로운 『리포지터리』의 양대 관심사는 ‘선교’와 ‘연구’가 되었다.

『리포지터리』가 ‘선교’에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 선교사들도 『리포지터리』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선교사들이 쓴 글은 1892년 56편 중 29편(약 52%)에서 1895년 61편 중 39편(약 64%)으로 늘어났다. 또한 1892년에는 8명이 29편을 썼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4명이 23편을 썼는데, 1895년에는 필진이 21명으로 늘어나고 19명이 1~3편을 기고하였다. 교단별 참여도도 향상되었다. 북감리교보다 선교사 규모가 컸으나 1892년 3명밖에 참여하지 않았던 북장로교는, 1895년에는 북감리교보다 1명 많은 9명이 18편을 썼다. 이외에도 남장로교, 영국국교회, 또 교단에 속하지 않은 선교사들이 『리포지터리』에 원고를 보냈으니 <표 2>와 같다.

<표 2> 1895년도 『리포지터리』 일반 기사의 선교사 필진(총 21명)

교단	성별	명수	이름(편수)
북감리교	남	5	아펜젤러(1), 존스(3), 힐버트(6), 스크랜튼(1), 버스티드(1)
	여	3	아펜젤러 부인(1), 존스 부인(1), 벙커 부인(1)
북장로교	남	7	게일(7), 기포드(2), 베어드(1), 에비슨(1), 스웰른(2), 웰스(1), 마펫(2)
	여	2	기포드 부인(1), 베어드 부인(1)
기타	남	4	전킨(1)(남장로교), 랜디스(2)(영국국교회), 맥켄지(1)(캐나다 독립 선교사), 빈튼(3)(1893년 11월 북장로교 사임)

비선교사 필진에도 변화가 생겼다. 1892년에는 23명 중 13명이 전직 선교사 또는 선교사가 아닌 사람들이었고, 그중 상당수는 한국을 잠깐 다녀가는 여행사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 이름을 밝히기를 꺼렸다. 그러나 1895년에는 비선교사의 수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으며,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일정 기간 거주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비정기적으로 글을 발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필자는 1892년 12월 『리포지터리』에 데뷔한 알렌으로, 1895년 3월부터 약 2년간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볍게 풀어낸 글 11편을 집필하였다. 다음으로 피르젤은 1892년 3편, 1895년 2편을 쓴 데 이어 1897년 3회에 걸쳐 갑신정변을 다루었으며, 제물포주재영국부영사 윌킨슨(William H. Wilkinson, 1858~1930)은 1895년 3월부터 1897년 7월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한국의 체스」를 포함하여 5편을 실었다. 연무공원 교관 다이(William M. Dye, 1831~1899)는 1895년부터 1898년까지 「한국에서의 외국 과일 재배」 등 주로 농업과 관련된 7편의 글을 기고하였다.

선교사들의 참여는 『리포지터리』에서 선교 관련 기사의 비중을 늘리는 결과를 낳았다. 선교 관련 기사는 병원과 학교, 교회 등 선교 현장에서의 경험담, 먼저 세상을 떠난 선교사의 전기문, 선교 사업의 방침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글, 교단별 공식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므로 어떤 기준으로 셈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1895년부터 1898년까지 매년 10편 내외—여행기를 제외하고—의 기사가 실렸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일반 기사 편수가 60편 내외였음을 생각하면 10편은 그리 많은 수가 아니나, 1892년 선교 관련 기사가 3편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확실한 증가였다.

새로운 『리포지터리』의 또 하나의 관심사였던 ‘연구’와 관련해서는, 소수의 선교사들이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여러 편의 연구 성과를 내는 모습이 나타났다.

〈표 3〉 1896년도 『리포지터리』 일반 기사 중 선교사들이 쓴 글(총 38편)

교단	저자	기사	편수
북감리교	존스	「마법의 고양이」, 「한국 여성의 지위」, 「현 왕조에 대한 역사 기록」(I)~(II)	4
	허버트	「한국의 성악」, 「한국의 시가」, 「한국의 글자」, 「지관(地官)」	4
	기타(3명)	「평양 전쟁터 방문기」(아펜젤러), 「배재학당」(병커), 「한국에서 여성(선교사들)의 활동」(스크랜튼 대부인)	3
북장로교	게일	「사랑 노래」, 「한국의 역사」(II)~(IV), 「보부상에 대한 시」, 「한국의 막노동꾼」	6
	밀러	「한강 상류로」, 「금강산에서」, 「금강산에서 원산으로」	3
	기포드	「한국 수도의 교육 현황」(I)~(II)	2
	스웰튼	「구앵(Gouin)의 언어 학습 시스템」	1
	베어드	「마가복음 번역본 검토」, 「교회는 침을 둔 사람을 포용해야 하는가?」(I)~(III)	4
	기타(3명)	「의학적 소감」(웰스), 「초기 선교 방법」(무어), 「한국에서 여성(선교사들)의 활동」(언더우드 부인)	3
남장로교	레놀즈	「현지인 목회」, 「한국에서의 성서 번역」	2
영국국교회	랜디스	「자명의 규칙」, 「한국의 어떤 속담」(I)~(II), 「숫자와 관련된 한국의 항목들」(I)~(II)	5
영국성서공회	켄뮤어 부인	「코스트 신부」	1

〈표 3〉에 따르면 1896년에는 총 58편의 일반 기사 중 38편이 16명의 선교사들에 의하여 집필되었다. 선교 관련 기사는 12편이다. 북감리교에서는 배재학당장 병커(Dalziel A. Bunker, 1853~1932)와 스크랜튼 대부인(Mary F. Scranton, 1832~1909)이 쓴 글 2편, 북장로교에서는 베어드(William M. Baird, 1862~1931)와 기타 3명이 쓴 글 7편, 남장로교 선교사 레놀즈(William D. Reynolds, 1867~1951)의 글 2편, 그리고 영국성서공회 선교사 켄뮤어 부인(Ann H. Kenmure, 1857~1937)이 번역한 「코스트 신부」가 여기에 속한다.¹⁵⁾

15) 1895~1898년 『리포지터리』에는 총 5편의 선교사 전기가 실렸는데, 그중 2편이 천주교 선교사의 전기였다. 켄뮤어 부인의 글은 프랑스어로 쓰인 코스트(Eugene J. G. Coste, 1842~1896)의 전기를 영어로 옮긴 것이고, 1898년 3월호에 수록된 「주교이자 순교자 베르뇌」는 존스가 베르뇌(Siméon F. Berneux, 1814~1866)의 전기 영역본과 『한국교회사(Histoire de l'Église de Corée)』(1874)를

선교 관련 기사 12편을 제외한 26편 중 20편은 북감리교의 존스와 헐버트, 북장로교의 게일, 그리고 영국국교회 선교사 랜디스(Eli B. Landis, 1865~1898) 네 사람에게 의하여 집필되었는데, 이들의 글은 한국의 언어, 역사, 문화에 진지한 관심을 두고 나름대로 공부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었다. 먼저 존스는 창간 첫해 『리포지터리』에 임진왜란사를 연재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역사에 흥미를 보였으며, 복간 후 편집자로 일하는 중에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여 여러 편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1895년부터 1898년까지 일반 기사 16편을 실었는데, 「제물포」, 「대원군」, 「주교이자 순교자 베르뇌」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역사와 문화에 관한 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童蒙先習』을 번역한 글(2편)과 조선 왕조 역대 국왕들의 생애와 업적을 5회에 걸쳐 연재한 「현 왕조에 대한 역사 기록」이다.

헐버트는 한글의 기원을 연구한 데서 시작하여 점점 관심 분야를 확장하였다. 1893년 정식으로 선교사가 된 그는 한국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공부하는 가운데 「한민족의 기원」과 「한국에서의 몽골인」을 연재하였고, <표 3>에 나타난 것처럼 한국의 음악, 시가, 글자, 풍수지리에 관해서도 글을 썼다. 1895년부터 1898년까지 일반 기사 19편을 기고하였는데, 「한국의 개혁」과 서평 1편—둘 다 1895년에 실렸다—을 제외한 모든 글이 한국의 언어(「한국의 글자」, 「로마자 표기법 재고」, 「이두」, 「한국의 속담」), 역사, 문화에 관한 나름의 연구 성과였다.

게일은 평신도 선교사로서 성서 번역과 사전 편찬에 주로 종사하면서 1895년부터 1898년까지 일반 기사 19편을 기고하였다.¹⁶⁾ 그는 존스나 헐버트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향한 학문적 열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논문이나 그에 준하는 글로만 표현하지 않고 시(「서양 사람」과 「한국의 노래」)와 수필(「한국의 조랑말」 외 2편), 여행기(「북부 지방 횡단 여

참고하여 쓴 것이다.

16) 게일은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888년 말 토론토대학 YMCA의 지원을 받는 평신도 선교사로 내한하였다. 1891년 북장로교로 소속을 옮겨 계속 평신도 선교사로 활동하였으며, 1897년 동료 선교사 마켓의 특별 추천으로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이상현, 『한국 고전번역가의 초상, 게일의 고전학 담론과 고소설 번역의 지평』, 소명출판, 2013, 13~14쪽).

행)처럼 자유로운 글로 녹여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는 번역가로서 한국의 시를 영어로 옮겨 『한국의 사랑 노래』 등 5편의 시를 실었으며, 역사와 관련해서는 『東國通鑑』 등을 참고하여 단군조선부터 5세기 말까지를 서술한 『한국의 역사』를 4회 연재하였다.

앞의 세 사람이 창간 당시부터 『리포지터리』의 주요 필진이었던 것과 달리, 랜디스는 1895년 1월 『念珠經』을 번역한 글을 실어 『리포지터리』에 데뷔하였다. 그는 펜실베이니아대학 시절에 만난 영국인 사제를 통하여 성공회 신자가 된 미국인으로, 1890년 가을 영국국교회 한국선교부의 일원으로 내한하여 인천에서 의료 선교에 종사하였다. 첫 번째 글을 낸 시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1894년에는 한국에 대한 공부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1898년까지 『불교 승려들의 독경 행렬』, 『한국의 속담』, 『왕실의 장례식』, 『한국의 풍수 지리』, 『한국의 약전(藥典)』 등 12편을 기고하였다.¹⁷⁾ 또 그는 소속 선교부에서 발행하던 『모닝 칼(The Morning Calm)』과 중국과 인도, 미국, 영국의 학술지에도 불교, 동학, 축귀(逐鬼), 민담, 동요, 관례와 장례 등을 주제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¹⁸⁾

19세기 말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은 선교 대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교 사업을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모두 한국을 공부하였으며 한두 편의 결과물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인 교사의 지도를 받고 한문으로 쓰인 자료와 씨름해 가면서 수년간 십수편의 글을 발표한 사람은 존스, 헐버트, 게일, 랜디스 네 사람뿐이었다. 영어권에서는 그리스도교 선교사로서 자신이 활동하던 곳의 언어, 역사, 문화를 연구한 사람을 ‘선교사 겸 학자’라는 말로 부르는데,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 중에서 ‘선교사 겸 학자’를 꼽는다면 적어도 개신교 쪽에서는 이 4명이 최초가 아닌

17) 1895년 랜디스가 기고한 글 2편에는 실명이 드러나 있지 않다. 『염주경』은 무기명으로 나갔고 『불교 승려들의 독경 행렬』에는 머릿글자 ‘L’이 사용되었다. 이는 영국국교회 선교사로서 미국 교단 잡지에 글을 실는 것이 조심스러웠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후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1896년부터는 ‘의학박사 랜디스(E. B. Landis, M. D.)’가 사용되었다.

18) 랜디스가 국내외에 발표한 한국 관계 논저 목록은 이영호, 『랜디스(Eli Barr Landis)의 의료활동과 ‘한국학’ 연구』, 『한국학연구』 44, 2017, 555~557쪽.

가 싶다.¹⁹⁾

1895년부터 1898년까지 『리포지터리』의 특징은 선교사들의 참여가 늘어나 선교 관련 기사가 증가하였다는 것, 그런 중에도 일부 선교사들은 한국을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에 관한 글쓰기를 계속하면서 학자적 선교사로 성장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편 강혜정은 『리포지터리』에서 시사평론지의 성격도 보인다고 분석하였는데, 일반 기사 중 그런 류의 글이 있기는 했지만 주류가 된 적은 없다.²⁰⁾ 일반 기사가 60편 내외였다면 선교 관련 기사는 10편 내외, 존스, 헐버트, 게일, 랜디스 등이 쓴 학문적인 글은 20편 미만, 나머지는 여행기나 경험담, 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가벼운 글이었다. 게다가 한국의 정치나 외교처럼 민감한 사안을 일반 기사로 다루는 것은 편집진의 의도도 아니었다. 일례로 1898년 1월호가 예전보다 정치적 문제를 덜 다루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아펜젤러와 존스는 『리포지터리』의 주요 관심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고 대응하였다.²¹⁾ 또한 1898년도 『리포지터리』 첫머리에는 “한국의 역사, 종교, 민속, 상업, 풍습에 관한 논문에 계속해서 중점을 둘 것”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

그러나 『리포지터리』의 뒷부분 즉, 편집자 집필 부문은 좀 달랐다. 편집진은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설명과 논평을 <편집부>에 실었으며, 『官報』와 『독립신문』에서 최신 소식을 발췌하여 <관보>에 수록하였다. 이는 복간 이후의 변화가 아니라 창간 첫해부터 나타난 모습이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리포지터리』는 창간 당시부터 학술적인 글과 비교적 비정치적인 내용을 다루는 일반 기사 부문, 한국의 정세를 보도 및 분석하는 편집자 집필 부문의 두 갈래로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895년 이후 <편집부>의 지면이 크게 늘어난 것에 주목하면 과거보다 시사평론지의 성격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19) 이들에 관해서는 이영미, 『한국을 연구한 초기 개신교 '선교사 겸 학자(missionary and scholar)'들』, 『한국기독교와 역사』 54, 2021.

20) 강혜정, 앞의 논문, 36쪽.

21) H. G. Appenzeller and G. H. Jones (ed.), *The Korean Repository*, Vol. V (January–December 1898), Seoul : The Trilingual Press, 1898, p. 107.

4. 『리포지터리』에서 『회보』와 『리뷰』로

창간 첫째 56편이었던 『리포지터리』의 일반 기사 편수는 1895년 61편, 1896년 58편을 넘어 1897년 63편을 기록하였다. 이 해에는 평균 5~6편, 12월호에는 기포드가 쓴 북장료교 의료선교사 헤론(John W. Heron, 1856~1890)의 전기를 비롯하여 7편이 실렸다. 그러나 1898년이 되자 일반 기사의 편수는 매월 평균 4~5편, 총 52편으로 떨어졌고, 같은 해 말 편집자인 아펜젤러와 존스는 1년 휴간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휴간 공지는 11월호에 실렸다. 북감리교 한국선교부의 가장 오래된 구성원 2명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됨에 따라 그들이 선교부에서 더 많은 일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2년간의 구독료를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이유는 물론 전자였다. 11월 5일 스크랜튼과 그의 모친 스크랜튼 대부인이 휴가를 얻어 유럽으로 떠났으며, 이는 아펜젤러와 존스에게 더 많은 책임을 안겨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은 12월호 <편집부>에 한 차례 더 언급되었다.

이번 호를 끝으로 『리포지터리』 발행을 1년 쉽니다. 우리는 한국에 이러한 종류의 정기간행물이 필요하다고 확신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4년 전 당시에는 일본인들이 발행하는 신문 1종 외에는 어떤 종류의 출판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월간지 발행이 교회가 우리에게 맡긴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선교부의 가장 오래된 구성원 몇 명이 휴가를 떠나게 됨에 따라,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몇 달간 펜을 내려놓습니다.²²⁾

일반 기사의 편수가 줄어든 것과 휴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기사의 안정적인 공급은 월간지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였다는 점에서 1898년 『리포지터리』는 1년 내내 어려움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 필진의 규모는 선교사가 17명(북감리교 7명, 북장료교 7명, 기타 선교사 3명)에 선교사가 아닌 사

22) H. G. Appenzeller and G. H. Jones (ed.), *The Korean Repository*, Vol. V (January–December 1898), Seoul: The Trilingual Press, 1898, p. 478.

〈표 4〉 1898년도 『리포지터리』에 수록된 일반 기사(총 52편)

구분	저자	기사	편수
북감리교 선교사	존스	『아시아의 인쇄와 서적』, 『주교이자 순교자 베르너』, 『대원군』, 『어떤 영웅에 대한 개요』	4
	스크랜튼 대부인	『그레이스의 결혼식』, 『여성 선교 활동』	2
	기타(4명)	『한국의 아기』(백길), 『평양의 민속』(폴웰), 『북감리교 한국선교부의 역사적 개요』(스크랜튼), 『원산과 한반도 횡단』(아펜젤러)	4
	편집자	『한국의 인쇄』, 『독립협회』, 『한반도를 돌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조된 총영사의 1897년도 무역 보고서』	4
	무기명	『일반 현황』(1월호), 『기독교 선교와 사회 진보』 서평, 『한국에 대한 스피어의 보고』, 『일반 현황』(4월호), 『선교 사업 일견』, 『한국 문학에서의 산스크리트어』	6
북장로교 선교사	게일	『한국의 신사』, 『徐光範』, 『한국의 노래』	3
	기타(6명)	『한국의 백정들』(무어), 『무시되어 온 어떤 선교 방법』(밀러), 『가사풀』(리), 『한국어 동사 ‘이오’와 ‘잇소』(베어드), 『도시와 시골에서』(언더우드), 『진보의 해』(위팅)	6
기타 선교사	랜디스	『한국의 풍수지리』, 『한국의 약전(藥典)』	2
	트롤로프	『의학박사 랜디스』, 『영국국교회의 한국 선교』	2
	펜워	『한국의 농업』	1
비선교사	헐버트 ²³⁾	『이두』, 『한국에서의 몽골인』(I)~(III)	4
	다이	『1897년 한국의 과수원』, 『한국 농장의 발전』(I)~(II)	3
	기타(실명)	『한국인 여성에 대한 애가』(첼벌레인), 『한국 수사(數詞)의 어원』(엡킨스), 『야자수 잎 6개의 발견』(난조 분유), 『원산의 무역』(오이센), 『한국의 대중 운동』(윤치호)	5
	기타(필명)	『나를 초대한 사람』의 2편(Naw), 『미녀와 야수』의 1편(X), 『진주의 용맹한 여성 論』(Roderick Random)	6

람이 9명, 총 26명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표 4〉를 보면 전반적으로 개인별 기여도가 낮았음을 알 수 있다. 26명 중 17명이 1편씩을 썼고 헐버트와 존스 단 두 사람만이 4편을 집필하였으며, 게일과 비선교사

23) 헐버트는 조선 정부의 교사 초빙에 응하여 1897년 봄 북감리교 한국선교부를 떠났다. 5년간은 관립한성사범학교 교장으로서 신학문 교육과 교과서 편찬을 책임졌고, 1902년 5월부터 3년 남짓 관립중학교 교사로 활동하였다(손정숙, 『구한말 헐버트(Homer B. Hulbert)의 대한인식과 그 활동』, 『이화사학연구』 22, 1995, 138쪽).

필진 2명(다이와 익명의 저자 'Naw')이 3편을 발표하였을 뿐이었다. 1896년 6편을 쓴 게일과 5편을 쓴 랜디스는 이 해에 많은 글을 쓰지 못했다. 게일은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의 신사」를 기고하고 3월 귀국하였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귀국 후 짧은 글 두 편밖에 쓰지 못했다. 랜디스는 「한국의 풍수지리」를 끝으로 4월 중순 32세의 나이에 병사하고 말았다. 12월호에 실린 글은 그가 『차이나 리뷰(The China Review)』에 게재하였던 글을 재수록한 것이었다.

〈표 4〉에서 주목되는 또 한 가지는 저자명이 '편집자(editor)'인 기사와 무기명 기사가 많다는 것이다. 편집자가 2명이 된 후 저자명에 '편집자'를 쓴 예가 없는데, 1898년에는 4편이 편집자가 쓴 글로 게재된 것이다. 어쨌든 아펜젤러와 존스가 공동으로 썼거나 둘 중 1명이 썼을 것이다. 무기명 기사는 「일반 현황」 2편을 포함하여 6편이었는데, 공통적으로 분량이 짧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상당 부분 옮긴 것이어서 굳이 이름을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종류의 글을 쓰고 무기명으로 『리포지터리』에 게재할 수 있었을까. 역시 편집자가 아니었을까 싶다.

저자를 '편집자'로 명시한 글은 「한국의 인삼」, 「독립협회」, 「한반도를 돌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조던 총영사의 1897년도 무역 보고서」 4편이었다. 이 글들은 목직한 일반 기사가 없거나 적은 달에 게재되었다. 「한국의 인삼」을 실은 5월호는 일반 기사 편수가 발행 기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적은 3편이었다. 「독립협회」를 실은 8월호는 일반 기사가 6편이었지만 대부분이 소략한 글이었고 2편은 무기명 기사였다.²⁴⁾ 「한반도를 돌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와 「조던 총영사의 1897년도 무역 보고서」는 모두 10월호에 실렸다. 영어로 번역된 일본 시 1편과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1859~1916)가 쓴 북장교로 한국선교부 연례보고서, 게일의 「서광범」만으로는 일

24) 6편의 일반 기사 중 주제가 적절하고 분량도 어느 정도 되는 것은 「독립협회」와 「한국의 농업」 2편뿐이다. 「야자수 잎 6개의 발견」은 일본의 불교 연구자 난조 분유(南條文雄, 1849~1927)가 쓴 글인데, 그가 『리포지터리』에 직접 기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잡지에 실린 것을 편집자가 가져온 것이었다. 「그레이스의 결혼식」은 여성 신사 '은혜'의 결혼담을 다룬 짧은 글이고, 「선교 사업 일견」과 「한국 문학에서의 산스크리트어」는 편집자가 무기명으로 쓴 기사였다.

반 기사를 꾸릴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²⁵⁾

1898년에는 무기명 기사 4편과 ‘편집자’가 쓴 기사 6편, 실명으로 쓴 일반 기사 5편을 합하여 총 52편 중 15편이 아펜젤러와 존스 두 사람에게 의하여 쓰였다. 그들이 『리포지터리』 후반부 즉, 편집진에게 할당된 지면 외에도 이렇게 많은 글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한 것은 예전만큼 글이 들어오지 않고 각 기사의 분량도 충분치 않아서였다. 이는 특수하거나 갑작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양질의 기사를 꾸준히 확보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랜디스가 사망한 것, 헐버트가 9월에 휴가를 떠난 것,²⁶⁾ 게일이 예전만큼 많은 글을 쓰지 못한 것은 1898년과 앞으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 3명과 존스야말로 속간 이후 『리포지터리』의 상당 부분을 채운 장본인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로 인하여 아펜젤러와 존스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글을 써야 했고, 늘어난 업무량만큼 선교부의 일을 돌보는 데 방해를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리포지터리』에 대한 애정에도 불구하고 1년 휴간을 결정하게 된 데는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

1900년에는 『리포지터리』의 두 번째 복간이 실현되는 대신 6월 16일 왕립아시아학회(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한국지부(이후 ‘RASKB’로 줄임)가 결성되었다. 왕립아시아학회는 영국의 학술 단체였고 RASKB의 초대 회장은 영국 공사가 맡았지만, 이 단체를 만들기 위하여 앞장선 사람은 영국인이 아니라 존스였다. 그는 『리포지터리』의 편집자로서 복간을 준비하는 대신 1899년 10월 왕립아시아학회에 편지를 보내 한국지부 설립을 문의하였다.²⁷⁾ 이는 공동 편집자였던 아펜젤러와 북감리교 한국선교부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RASKB는 정식 학술 단체로서 기관지를 발행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크랜튼과 아펜젤러를 필두로

25) 『한국인 여승에 대한 애가』와 『도시와 시골에서』를 가리킨다. 이 2편의 글도 저자가 『리포지터리』에 직접 기고한 것이 아니라 편집자가 가져다 실은 것이었다.

26) H. G. Appenzeller and G. H. Jones (ed.), *The Korean Repository*, Vol. V (January–December 1898), Seoul : The Trilingual Press, 1898, p. 355.

27) RASKB (ed.),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I, Seoul :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0, p. 72.

북감리교 선교사가 7명이나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존스를 부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북감리교 한국선교부가 『리포지터리』 간행을 완전히 단념하고 RASKB 창립을 주도하였음을 뜻한다.²⁸⁾

존스나 북감리교 한국선교부가 외부인들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이 일에 나선 것은 물론 아니다. RASKB가 기관지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글을 써 줄 사람이 필요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수년간 『리포지터리』에 많은 글을 발표한 헐버트와 게일은 RASKB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고, 이후의 저술 이력을 보면 두 사람도 『리포지터리』를 대체할 창구가 필요하였던 것 같다. 이렇게 하여 존스, 헐버트, 게일은 RASKB의 주역이 되었다. 그들은 창립총회를 이끌고 초대 부회장, 기록 담당 서기, 교신 담당 서기로 선출되었으며, 기관지 『회보』의 발행에도 절대적으로 공헌하였다. 『회보』는 1900년부터 1903년까지 연1회 발행되면서 9편의 연구 성과를 실었는데,²⁹⁾ 그중 7편이 이 세 사람의 글이었다(존스가 3편, 헐버트와 게일이 각 2편).

『회보』는 순수한 학술지였고 1년에 한 번 발행되었으므로 종합 월간지 『리포지터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었다. 1901년 창간된 월간지 『리뷰』는 이러한 점에서 『리포지터리』의 대안이었다. 『리뷰』는 1897년 북감리교 한국선교부를 떠나 관립한성사범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헐버트가, 『리포지터리』가 더 이상 발행되지 못하게 된 상황을 유감스럽게 여겨 창간한 매체였다.³⁰⁾ 1906년까지 발행된 이 새로운 잡지의 특징은 많은 부분이 헐버트 한 사람에게 의하여 쓰였다는 것이다. 그는 편집자로서 〈편집자의 말〉, 〈질의응답〉, 〈뉴스 달력〉 등의 항목을 쓰는 것 외에도 일반 기사와는 별개로 4년간 『한국의 역사』를 연재하였으며, 일반 기사 기고를 받는 외에도 많은 글을 직

28) RASKB 창립총회에는 17명이 참석하였다. 그중 선교사가 북감리교 7명, 북장로교 3명, 영국국교회와 영국성서공회 각 1명으로 12명이나 되었다. 나머지는 주한영국대리공사와 주한독일총영사, 해관장관 궁내부 고문, 관립한성사범학교 교장 헐버트였다.

29) 『회보』는 1903년 이후 10여 년 가까이 나오지 않다가 1912년 나왔다. 러일전쟁 이후 국권 침탈 등으로 한국의 정세가 불안한 것도 원인이었겠지만, 글을 쓸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다.

30) Homer B. Hulbert (ed.), *The Korea Review*, Vol. I No. 1, Seoul :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1, p. 22.

집 집필하였다.³¹⁾ 그러나 존스와 게일도 『리뷰』의 창간을 지지하고 도왔다. 존스는 창간호에 「새로운 세기」와 3월호에 「薛聰」을 게재하였고, 게일은 쿠랑(Maurice Courant, 1865~1935)의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e)』 서론 일부를 두 차례에 걸쳐 번역 기고하였다.

『리포지터리』는 1898년 12월을 끝으로 휴간하였고 다시 복간되지 못했다. 그러나 창간 때부터 『리포지터리』에 참여한 존스, 헐버트, 게일은 북감리교 한국선교부의 지지 아래 RASKB를 창립하였고, 기관지 『회보』를 통하여 『리포지터리』의 여러 기능 중 하나—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 연구의 장—를 이어나갔다. 이듬해 헐버트가 창간한 『리뷰』 역시 『리포지터리』를 계승한 것이었다. 『리뷰』는 『리포지터리』와 마찬가지로 일반 기사 부문과 편집자 집필 부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술적인 글과 당시 한국의 사정을 다룬 글을 두루 다루으로써 『리포지터리』의 뒤를 잇는 종합 월간지로 자리매김하였다.

5. 맺음말

이상으로 북감리교 한국선교부가 만든 영문 잡지 『리포지터리』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리포지터리』는 1892년 올링거에 의하여 1년간 발행되었고, 1895년부터 1898년까지 4년간은 아펜젤러와 존스에 의하여 발행되었다. 올링거 편 『리포지터리』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두루 다루는 종합 월간지로 기획되어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에 관한 초보적인 연구 성과와 한국의 현재 상황을 다룬 글을 두루 실었다. 아펜젤러와 존스 편 『리포지터리』는 ‘선교’와 ‘연구’ 두 분야에 대한 편집진의 관심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선교 관련 기사가 늘어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의 언어, 문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학술적인 글이 제출되었다. 특히 북감리교의 존스와 헐버

31) 일반 기사의 부족은 『리뷰』에서도 계속된 문제였다. 1901년부터 1904년까지 헐버트는 대부분의 글을 혼자 썼고 그 때문에 발행 중단을 고려하기도 했다. 『리뷰』의 성격과 의미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트, 북장로교의 게일, 그리고 영국국교회의 랜디스는 이 잡지를 통하여 ‘선교사 겸 학자’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월간지 간행은 또다시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서 1898년 12월 편집진은 1년 휴간을 결정하였다. 북감리교 한국선교부에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그보다는 일반 기사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는 데서 근본적인 문제를 찾을 수 있다. 아펜젤러와 존스는 『리포지터리』 지면을 채우기 위하여 매달 많은 글을 써야 했던 것이다.

『리포지터리』는 1900년 복간되는 대신 RASKB 창립과 『회보』 간행으로, 이듬해 『리뷰』 창간으로 이어졌다. 이는 다른 누구보다도 존스와 험버트, 게일 세 사람이 노력한 결과였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와서 서로 알고 지낸 것은 사실이지만, 소속이 같지 않았을 뿐 아니라 거주 지역도 달랐다는 것이다. 『리포지터리』가 창간되었을 당시 존스는 인천, 험버트는 미국 오하이오주, 게일은 서울에 있었고, 1895~1898년에는 인천과 서울, 원산에서 거주하였다. 이들을 묶어 준 것은 교단이나 개인적 친분이 아니라 『리포지터리』에 표출된 그들의 학구열이었다. 그들은 한국을 깊이 연구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당시 재한서양인 사회에서 몇 안 되는 동지였다. 그들의 협력 관계는 존스와 험버트의 귀국으로 일제강점기에는 지속되지 못하였으나, 그들이 함께 만든 RASKB는 게일과 또 다른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서양인들에 의한 한국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 참고문헌

- 『코리아 리뷰(The Korea Review)』
- 『코리안 리포지터리(The Korean Repository)』
- 『왕립아시아학회 한국지부 회보(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 김인수 옮김, 『알렌 의사의 선교·외교 편지(1884~1905)』, 장로회신학대학교부설 한국교회사연구원, 2007.
- 강혜정, 『The Korean Repository의 학술자료적 가치』,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6-4, 2017.
- 설충수, 『미 북감리교의 이중 언어 교육 논쟁 연구: 프랭클린 올링거의 복주 영화서원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45, 2016.
- 손정숙, 『구한말 험버트(Homer B. Hulbert)의 대한인식과 그 활동』, 『이화사학연구』 22, 1995.
- 육성득, 『초기 한국 북감리교의 선교 신학과 정책: 올링거의 복음주의적 기독교 문명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11, 1999.
- 유영립·윤정란, 『19세기 말 서양 선교사와 한국 사회: The Korean Repository를 중심으로』, 경인문화사, 2004.
- 이덕주, 『존스의 한국 역사와 토착종교 이해』, 『신학과 세계』 60, 2007.
- 이상현, 『한국 고전번역가의 초상, 계일의 고전학 담론과 고소설 번역의 지평』, 소명출판, 2013.
- 이영미, 『한국을 연구한 초기 개신교 '선교사 겸 학자(missionary and scholar)'들』, 『한국기독교와 역사』 54, 2021.
- 이영호, 『랜드리스(Eli Barr Landis)의 의료활동과 '한국학' 연구』, 『한국학연구』 44, 2017.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Korean Repository*, English-Language Magazine Published between 1892 and 1898

Lee Yeong-Mi*

In January, 1892,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published a magazine in English named *The Korean Repository* at the Press of the Methodist Episcopal Mission established in the basement of Paichai School. The thirty-seven page publication consisted of five contributed articles and editorial section. The editors were Franklin Ohlinger (1845-1919) and his wife, who came to Korea after they had been missionaries in China for many years. As a general magazine rather than a special one, it treated all about Korea,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from the beginning.

The autho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Repository* by reviewing all the process from the publication to the suspension. First of all, Ohlinger made it as an all-around magazine publishing basic research papers on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as well as articles on its current situation. It was not his intention to fill it with writings about Christian missionary work in Korea. Secondly, its new editors, Henry G. Appenzeller (1858-1902) and George H. Jones (1867-1919), made it clear that its two interests would be “Christian mission” and “research on Korea.” On the one hand, mission-related articles increased, and on the other hand, academic papers

* Center for Korean Studies, Inha University

on Korean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were steadily contributed. Finally, it was not discontinuance but one year of pause that Appenzeller and Jones agreed to, although it had been never republished since December, 1898. Its editors and main contributors published two magazines in order to succeed it, in other word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and *The Korea Review*.

Key words: Korea Mission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The Korean Repository*, Franklin Ohlinger, Henry G. Appenzeller, George H. Jones, Homer B. Hulbert, James S. Gale, Eli B. Landis,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The Korea Review*